

# 호국불교는 계율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3)

원효는 인간이 다투게 된 것은 번뇌와 집착 때문에 일심(一心)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일심을 찾아 그 곳으로 돌아감으로써 화쟁할 수 있다는 화쟁사상을 발전시켰다. 원효는 계율에 관해서는 보살이 계를 여실히 지키려면 상대적인 율(律)이나 이(理)가 아니라 일심을 비추어 계를 지켜야 하며, 겉모습으로만 계를 지키는 것은 계를 도둑질하는 편견(계도견 戒盜見)이라 하여 이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호국불교는 고려로 전해졌다. 고려에서는 토속신앙 및 도참사상과 결합해 국토수호 의지가 더욱 강화됐고 호국의식과 행사가 발전했다. 고려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 중 제1조에서 국가대업을 반드시 제불(諸佛) 호위의 힘에 의한다고 해 기본이념에서부터 호국불교의 입장에서 출발했다. 고려에서는 팔관회, 백고좌인왕도량, 금광명경도량 등 83종의 많은 호국의식과 행사가 있었다. 개최 횟수는 기록된 것만도 1038회에 되었다.

또한 사상적으로 원효의 원용 화쟁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의천의 교관변수, 지눌의 정혜쌍수로 사상적 통일을 추구했다.

특히 승종 때에는 향마군이라는 승병의 상비제도를 창설해 정규군에 포함시켜 호국의 선봉이 됐다.

고려 말에는 전선조병, 조총사격수, 화약제조병 등 전문적인 기술병은 승군이 독점했다. 승병이 정규군으로 호국의 선봉이 됐던 것이다. 조선에서 임진란으로 국가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서산, 사명, 영구 등 대승들이 승병을 일으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적을 무찌르는 데 앞장 서 큰 공을 이룬 것은 이러한 전통을



팔상성도, 수하향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귀의 항복을 받는 상

이어 받았다. 일부 논자는 호국경전에서 적을 퇴치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교설이나 호국불교의 족적들이 결과적으로 정의의 전쟁을 긍정하는 것이고 불살생계라는 불교의 첫째 계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입장과 정의의 전쟁에 대한 평가, 계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러한 평가는 전혀 달라진다.

필자는 붓다의 가르침이 침략자에 대해서 국가가 망하고 백성이 도륙을 당해도 저항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싯다르타 태자는 출가수행 중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추구할 때 악의 세력을 강력히 저항의지와 승리의 신념을 갖고 극복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붓다의 일생 중 깨달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수하향마의 이야기는 보살이 마왕의 세력과의 강인한 투쟁에서 승리해 붓다가 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마왕 파순과 그의 투쟁에서 인간으로서의 고타마는 무서운 결심과 노력, 생사투쟁 투쟁을 통해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정취한 것이다. 그래서 경전에서 붓다를 '큰 승리자' '대 정진자' 또는 '전투에 승리한 영웅'으로 호칭한다.

이 싸움은 신화화된 선과 악의 내면적 투쟁을 그리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이 악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의의 전쟁이론과 침략에 대한 정당방위는 구별해야 한다. 서양에서 중세부터 개발된 정의의 전쟁이론은 중세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과 같이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전된 이론이다. 호국불교의 전쟁론은 침략에 대한 자기수단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과 침략전쟁에 대한 방어는 다르다. 이는 고의적인 살인과 정당방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살인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다.

적의 침략을 받아 국가를 방어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행위이다. 국가는 주민의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자유와 안전은 권력 재산 사람 기술 등 다른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가치이다. 국가가 비폭력의 아힘사와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지키기 위하여 적에게 저항하지 않고 주민의 자유와 안전을 포기하고 가라앉으면 불교는 지금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불교에는 침략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전쟁이론이 없다고 본다. 불교에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다. 또한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경우에도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전쟁 중에도 살생



고려에서는 팔관회, 백고좌인왕도량, 금광명경도량 등 83종의 많은 호국의식과 행사가 존재했다. 사진은 2004년 부산에서 열린 국제민간단체 APECT 성공 개최를 위한 팔관회.

### 고려시대 호국 행사 친회 이상 불살생계와 정당 방위 구분해야 전쟁 불가피성 인정하나 예외적 원칙의 현실 적용 지혜 필요

를 최대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호국불교는 대승불교의 구세이념을 선진적으로 구현한 특이한 예에 속한다고 본다. 불보살의 서원은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일체중생의 구원에 두고 있고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려는 것이다. 특히 전쟁과 같이 집단이 개입된 문제에서 자기 영혼이나 마음의 평화만을 위해 구세의 정신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정치가는 개인의 양심만을 지키는 심정윤리에 머물 수 없음을 막스 베버는 책임윤리로 설명했다. 전쟁과 같은 사태에서 정치가는 물론 구세의 이상을 가진 보살정신의 소유자가 소승적 계율에 얽매일 수 없다.

막스 베버는 정치인이 따라야 할 도덕적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윤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 대조적인 도덕론인 심정윤리(心情倫理)와 책임윤리(責任倫理)를 구분했다. 그는 "크리스천은 올바른 행동할 뿐 결과의 일은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격언을 인용하면서 심정윤리의 신봉자들은 목적과 수단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최고선을 위해 절대적인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역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정치는 특수한 수단, 즉 이른 바 폭력을 배경으로 하는 권력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에 요구되는 것과 절대적인 윤리가지 사이에는 완화하기 어려운 긴장이 있다는 것

이다. 정치적 지도자는 "자신의 결정이나 행위의 현실적 결과에 대하여 신이나 이성, 양심의 내적 명령에만 책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

베버는 정치적 행위의 기준으로 동기(動機)만을 중시하는 심정윤리를 반대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이론은 성과만을 중시하고 과정과 동기를 등한히 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베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려는 사람은 정치적 영역에서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보살은 자기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일체중생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손과 양심만 깨끗함을 추구할 수 없는 것이다.

위로는 반야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 보살의 입장도 그러한 책임정신을 외면할 수 없다. 대승의 보살은 자신이 지옥 불에 떨어질지라도 중생을 다 구제하기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지니고 있다. 불교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호국불교를 불교의 근본정신이나 계율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비폭력과 불살생의 계율을 지닌 불교의 아힘사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원칙이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데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경직된 규칙이 아니다. 원칙을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개인의 지혜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에 호국경전에서 호국을 위해 반야경을 수지 독송할 것을 권했던 것이다. 비폭력, 불살생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반야경에 대한 판단은 반야경에 로 결정하도록 했다.



전정구(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8)

### 멸쟁(滅諍)의 의미 사마타

삼(Sam)에서 파생된 사마타(samatha)의 세 가지 율례 가운데 두 번째는 다름을 진정시키는 멸쟁(滅諍)을 말하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산띠(santi)와 같이 번뇌를 소멸한 상태, 즉 열반 혹은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먼저 세 번째 율례부터 살펴보자.

앞에서 사마타를 닦으면 탐욕(貪欲), 즉 정의적(情意的) 번뇌를 떠나게 되고, 다시 위젯사나를 닦으면 무명(無明), 즉 이지적(理智的) 번뇌를 떠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초기불교보다는 후대의 남방상좌부(南方上座部)불교의 사상을 더 많이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남방상좌부불교는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의 수행도(修行道)로 체계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타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것은 교리를 체계화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테면 <범구경>의 제372계와 같이, 선정과 지혜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마타는 수행도의 아래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필요조건이라는 쪽이 적당할 것이다. 아무튼 사마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움직이지 않아서 탐욕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기에 궁극적인 깨달음인 열반에 이르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산띠(santi)나 산따(santa)의 세 분류에 의하면, 당연히 피분적(彼分敎)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定)으로서의 사마타가 궁극적 열반의 기반이 돼야 한다. 이른바 사마타의 의미 가운데 세 번째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선정(禪定)의 사마타는 깨달음의 사마타와도 겹치기 때문이다.

"적정인(santa) 세존은 사마타를 위해서 법을 설한다"(DN III, p.54; MN I, p.235)와 같은 용법은 산따(santa)와 사마타(samatha)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열반을 실현한 세존은 반열반(般涅槃, parinibbāna)을 위해서 법을 설한다"(ibid)고 돼있다. 이것은 사마타가 반열반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다. 여기서 사마타는 분명히 완전한 열반인 깨달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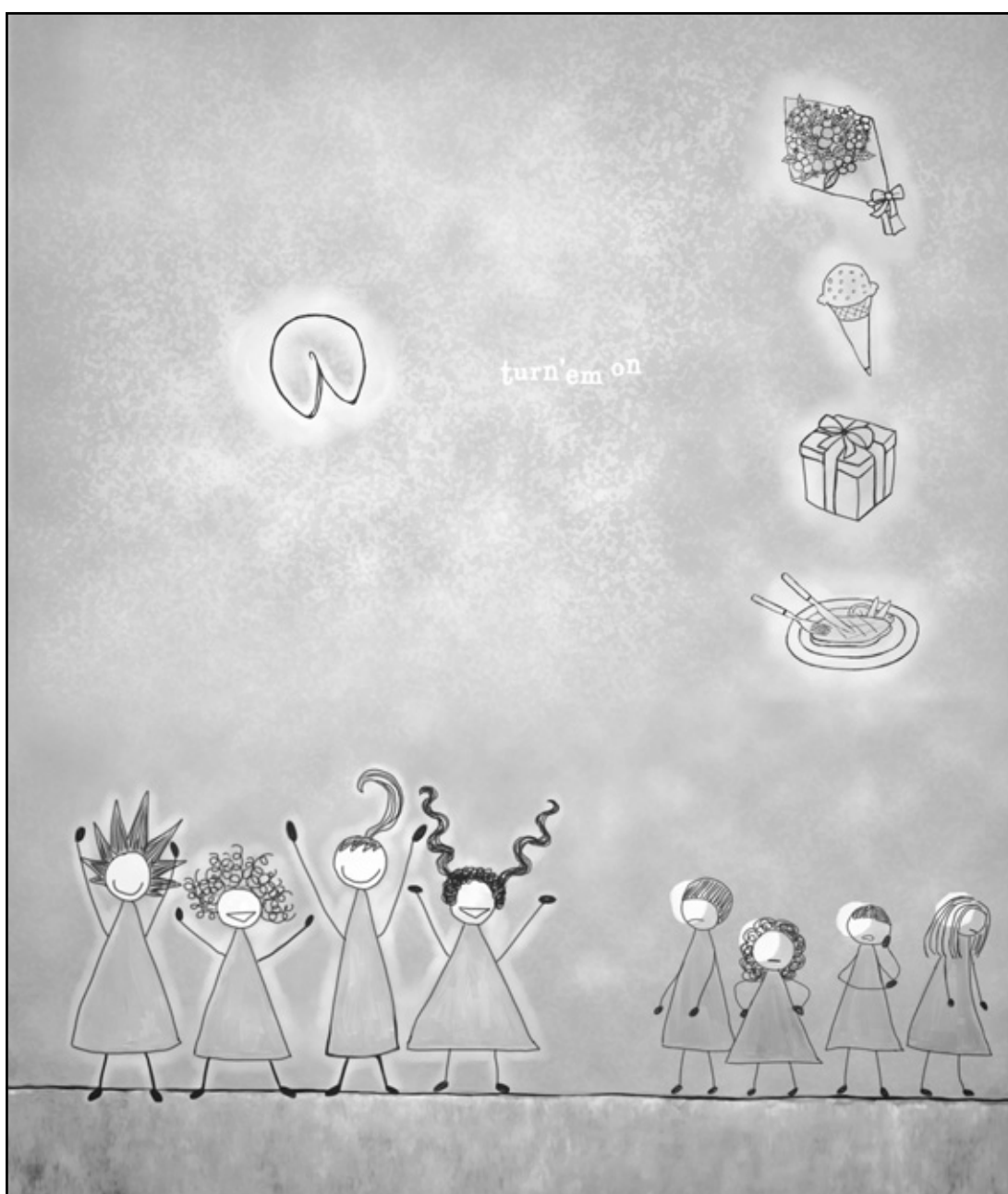
이와 같은 용법의 사마타는 삼바사카라사마타(sabbasaṅkhāra samatha) 즉 '제행(諸行)의 적지(寂止)라는 정형구(定型句)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것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산띠(santi)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경적(究竟敎)의 내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마타는 단순히 수행도로서의 선정(禪定)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구경(究竟)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마타는 산띠(santi)나 산따(santa)처럼 널리 쓰이지 않았고 깨달음을 나타내는 단어로서의 술어(術語)는 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멸쟁(滅諍)·지정(止諍)의 의미로서의 사마타는 "발생한 정사(靜事)를 진정시키며, 지양시키기 위한 일곱 가지의 멸쟁(滅諍, adhikarṇasamatha)이 있다"(DN III, p.254; AN IV, p.144) 이것은 교단에서 다름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진정시키고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율장의 빠띠목카(pāṭimokkha, 波羅提木叉)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소품(小品)의 멸쟁건도(滅諍健度)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해져 있다.(Vin II, pp.73-104) 이것은 세속의 여러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속적(世俗敎)에 해당된다.

우리가 이념으로서의 평화를 논할 때, 그 평화란 적정(寂靜인) 깨달음의 세계-그것은 참으로 자유·평등으로 인간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세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투쟁이나 전쟁이 없는 세계도 당연한 평화의 정의라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평화의 적극적 정의이고, 후자는 평화의 소극적 정의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논할 때, 오히려 후자 쪽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 What is Buddha Cookie!!

#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흥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현대불교 현불잡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